

제3차 한·중 표준화 소위원회



국제표준협력팀 공업연구원 유경희
02)509-7400 ghyu@mocie.go.kr

1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
 - '06. 6. 28(수)~29(목), 표준정례위원회 및 산업시찰(중국 서안)
- 참석자
 - 한국측 : 남인석 기술표준정책부장 등 6명
 - 중국측 : Shi Baoquan SAC(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) 부위원장 등 12명
 - ※ 한국표준협회(산업표준본부장 등 2명) 및 중국표준연구소도 참여

2. 회의 결과

가. 제2차 회의결과 추진실적('05.11월-'06.6월) 평가

- 상호협력을 위한 전자서신교환(46회)
- ISO/IEC 기술위원회에서 상호지지(3회)
 - ISO/TC112(진공기술)분야 한국측 제안 규격 4종
 - 아국의 ISO 이사회, IEC SMB 진출 지지('05)
- 물류표준화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('06.5. 북경)
 - 한국의 물류전문가들이 북경을 방문하여 이번 표준화 정례회의시 표준화협력 의향서(LOD)안 작성
- 중국의 스포츠 표준화, 지적재산권 표준화 조사단 방한지원
- 중국의 SAC 위원장 방한 지원 약속('06.7.30 방한예정)



나. 양국 국가 표준정책 소개

- 한국측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소개
- 중국측은 중국국가표준화전략 및 지원현황을 소개
 -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에 따른 시장지향적 중국 표준 지향
 - 과학기술성과 효율/적시성 있는 기술표준으로 전환
 - 우수산업 및 주요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표준 제정
 - 국제표준에 중국기술이 반영되도록 노력
 - * 2020년 까지 국제표준화 부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
 - ※ 중국측은 한국의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원문과일을 전송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중국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측에 제공키로 함

다. ISO/IEC내 기술위원회(TC)에서 상호협조 및 지원

- ISO/TC 112(진공기술), ISO/TC17/SC15(철도), SC17(비합금강철), ISO/TC132(합금철), ISO/TC39/SC2(공작기계), IEC/TC111(전기전자분야 환경표준화), JTC/SC25(IGRS), IEC/TC100(홈네트웍) 분야에서 각국의 표준화 신규제안규격에 대한 상호지지
- ISO/TC 34/SC11(식용유지)에 중국대표의 간사 진출시 한국측지지 요청
- IEC/CAB(적합성평가정책위원회)위원 진출 상호 지지

라. 물류표준화 협력지속 추진

- 이번 3차 정례회의에서 한·중 물류표준화협력의향서 서명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를 중국 측이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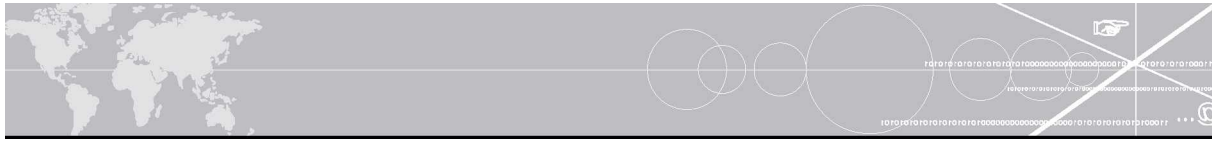
- 중국측 담당자의 갑작스런 출장과 SAC 내부에서 해당 협력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설명
- 한국측은 “물류표준화 협력의향서(LOD)” 서명조속 추진 및 APSF(아시아 파렛트준연맹, 한·중·일 민간협의체)에서 제안한 파렛트 규격을 중국 국가규격으로 채택 요청
- 양국 물류표준담당 부서간 파렛트, 포장, 창고 분야 우선 협력추진 합의

마. 식품 및 환경 분야 협력(중국측 제안)

- 식품규격위원회(CODEX)의 CAC 회의(06.7월, 중국)에 한국대표 참가
- 비발효 콩제품, 농약잔류 및 식품첨가제관련 중국안에 대한 지지 요청
 - * 중국측은 차기 회의시 식품 안전규격 담당부처의 전문가 참여를 요청
- ROHS 규제에 대한 공동대응
- 한국의 “전자제품 및 자동차부품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”진행경과에 대한 최근 정보제공
 - * ISO/IEC/TC내 협력과 식품 및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협력 방법과 절차 등을 추후 문서로 제출하고 양측은 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부처(서)에 전달하여 지지와 협력을 요청키로 합의

바. 기타

- 제4차 회의는 07.6월 경주에서 개최키로 합의
- 이번 회의시 제기된 협력과제는 양측의 표준 담당부서간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시 보고토록 함.



3. 관찰 및 평가

- 중국정부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년 크게 증가
 - 중국측 회의 참가자의 직급과 참여규모 확대
 -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중국측 협력요청 분야 급증(2개->10개 분야)
 - 2020년까지의 표준화 장기 추진 목표를 설정
 - 중국 국가표준화기관인 SAC의 기능 강화(모든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·개정 및 감독 권한 보유)
- '05년 김치분쟁으로 야기된 식품분야에서의 표준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
 - 지난 회의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도 관련부처 전문가의 참석을 요구
- 표준화 소위에 대한 중국측의 성의 있는 준비
 - 회의를 중국 표준의 발상지인 진시황 유적지인 西安에서 개최
 - 회의장 시설 및 장비, 양국 발표 자료집 발간, 다양한 의제발굴, 중앙 및 지방정부조직 대표에 의한 공식 오만찬 등 치밀한 준비

4. 향후 추진계획

가. 회의결과록(Minute) 합의 작성

- 중국측이 작성하여 보내 올 회의록 초안 검토 대응
- *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촉구하여 실질적인 성과 거양

나. 합의사항 이행

- 제2차 국가표준 기본계획 파일 송부

- ISO/IEC/TC에서의 구체적인 협력방법 및 절차를 작성 중국측에 요청
- 중국측의 지원요청에 대해 관계부처(서)에 협조 문서 발송
- 차기회의시 식품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담당부서 전문가 참석 요청

다. 중국 SAC 위원장 방한 지원

- 일시 및 장소 : 06.7.31(월), 기술표준원
- 참가자 : Mr. Liu Pingjun 위원장(차관급)외 10명
- 의제
 - RFID에 사용되는 EPC(Electronic Product Code) 시스템 운영 현황
 - 양국 표준화기관의 조직 및 기능
 -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양자 협력 방안 등

[참고 1]

□ 제3차 한·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개최 결과

- 일시 및 장소 : 06.5.9(화), 중국 북경
- 참석자 : 한국측 안전서비스부장 외 5명, 중국 CNCA 부주임 등 12명
- 회의결과
 - 적합성평가 관련 최신 정보교환
 - 시장접근 예로사항 제기
 - 안전 인증결과 상호인정(MRA) 가능성 논의
 - 양국 민간 인증기관간 협력 확대 방안
 - * 양국의 안전인증관련 설명회에 전문가 상호 파견 합의(06.7월, 12월) 